

교차로

출가



희찬스님 16주기 열반제

현해 월정사 주지는 24일 대웅전에서 만화당 희찬스님의 16주기 열반제를 봉행했다.



석굴암 대표소건물 상량

법당 불국사 석굴암 주지는 23일 재신축중인 석굴암 대표소건물 상량식을 거행했다.



어린이지도자연수회서 법문

해담 각화사 주지는 1일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열리는 제26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에서 '깨어있는 삶을 위한 수행 길'을 주제로 법문한다.



청소년 상담프로그램 운영

법산 부산 양정청소년회관장은 성격검사를 통한 자기탐색 등 겨울 방학을 맞은 청소년을 위한 특별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제주불교총연합회 회장에

수암 제주 금봉사 주지는 20일 제주 KAL호텔 2층 연회실에서 제2대 제주불교총연합회 회장에 취임했다.



자원봉사공로 문화부 장관상

정민 청소년교화연합회 부여지회장은 문화관광부 주최로 29일 부여군 군민회관에서 열린 자원봉사 활성화 공로자 시상식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어린이간병인회 발족식

성덕 불교자원봉사연합회(사천왕사 주지)은 18일 제8회 자원봉사 시인대학 수료식과 어린이간병인회 발족식을 서울 명동 유네스코문화교류센터에서 가졌다.

“노숙자 빨리 일자리 찾았으면...”

IMF시대 자비보살



매통기롭게 무료급식소 장대비화 봉사대장

“저마다 어려운 형편에도 틈들이 시간을 내서 무료급식에 동참해 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지난 6월부터 서울 제기동에 열기 시작한 실직노숙자를 위한 매통기롭게무료급식소 봉사대장 장대비화보살의 말이다.

“경제한파로 어느때보다 힘겨운 한해였지만 무료급식에 필요한 쌀은 보문선원 주지 성광스님이 직접 사찰을 다니면서 모아 주셨고, 부식비등은 후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고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까지 운영되는 매통기롭게무료급식소에는 현재

평균 2백여명의 실직노숙자들이 이용하고, 자원봉사자가 1백여 명이 넘는다.

“보살것 없는 점심 한끼지만 맛있게 먹는 실직자들을 볼때면 내 아들같은 생각에 가슴이 뭉클하다”는 대비화보살은 “내년에는 무료급식소를 찾는 실직노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재기의 꿈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이은자 기자 (ejele@buddhapia.com)

“웃음 되찾은 동심볼때 보람”

실직가정 어린이학교 신웅균 교장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자녀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찾아 실직가정 부모들의 효용이 대단히 좋습니다.”

경블린 이웃웃음돕는사람들이 지난 11월2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실직가정 어린이 희망만들기 열린학교’의 교장 신웅균(38)씨. 그는 IMF관리체제 이후 실직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문을 연 열린학교가 ‘실직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포교사업의 단초로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볼 때 열린학교가 불교 교육운동의 시발점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학교는 매일 오후 3시30분~7시까지 관내 초등학생 51명에게 무료 학습과 저녁급식을 제공. 그간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예산지원이 끝나는 내년 11월이후에도 계속 문을 열 계획이다.

신교장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볼 때 열린학교가 불교 교육운동의 시발점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성탄 축하하는 화계사 불심



서울수리 화계사 (주지 성광)와 화계사 청년회는 인근에 있는 수유리 한신대학원과 송암교회 앞에 ‘성탄을 축하합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19일 부착했다.

화계사 주지 성광스님은 “남의 종교를 존중할 줄 알고 이웃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화계사 대중들의 마음의 표현”이라며 “학교와 교회축에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에는 한신대학원과 송암교회에서 화계사 입구에 봉축축하 현수막을 걸었으며, 특히 96년 화계사 방화사건 때는 한신대학원 교수와 학생들이 화계사에 위로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다.

한 주민은 “한 동네에 있는 불교와 개신교가 서로 축하해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며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통일·환경운동 지역중심 펼쳐”

대불련 새회장 한승희씨



“대학생 불자들이 통일운동과 지역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20일 동국대 학림관에서 열린 제36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정기총회에서 제37대 회장으로 선출된 한승희씨(인천대학교 전기공학과).

한 회장은 “기묘년(99년)을 대불련 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하기위해 신입생 포교활동과 지도부 교육사업을 펼칠것다”고 밝혔다. 또 “통일·정보통신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각 지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환경 등 지역운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승희 신임회장은 97년 대불련 인천지구지부장을 역임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교차로

새가

동국대에 기금 5천만원 전달

이연택 전 총무처장관은 21일 오전 10시 동국대 교무위원회의실에서 법과대 발전기금으로 써달라며 송석구 동국대 총장에게 5천34만원을 전달했다.



한·독 학회 신임회장

조희영 동국대 교수(교불련 회장)는 19일 송실대 정보과학대학원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독일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선임됐다.



부산불교교육대 동문 송년회

이후 부산불교교육대학장은 19일 부산 코리아나 뷔페에서 98년 한해를 마감하는 동문합동 송년 법회를 봉행했다.



불교미술 연구원 개원

김성호 불교미술전시관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불교미술전시관 옆에 불교미술연구원을 개원했다.



불자기수회 8돌 기념법회

명국현 대한불자기수회장은 29일 오후 6시 서울 뉴월드호텔에서 창립 8주년 기념법회를 가졌다.



결식학생에 쌀·성금 전달

조계종립 정담종합고등학교 (교장 이근우)는 18일 교내 결식 학생들이 방학동안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쌀과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사진).



학생 50명에게 1인당 쌀 20kg과 1만원권 농산물 쿠폰, 라면 1박스 등을 직접 가정 방문을 통해 전했다. 김재경 기자



월운스님 고회 논총 출판 기념법회

동국대경원장 월운스님(봉선사 회주) 고회기념 논총(불교학 논총) 출판 기념법회가 20일 오전 10시30분 동국대 증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석주(철보사 조실), 암도(조계종 교육원장), 일민(광동학원 이사장)스님과 동국대 송석구 총장, 자민련 김용재 부총재, 한나라당 이상현 의원, 중앙일보 이은운 전문위원 등 사부대중 8백여명이 참석, 축하했다.



해인사 동광당 명진화상 49재

진 해인사 주지 동광당 명진화상의 49재가 18일 해인사총림 대적광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49재에는 해인총림 방장 법전스님을 비롯 도견, 고봉, 송철, 봉주, 정원스님등과 재가불자 1천여 명이 참석했다.

덕운스님은 “중단이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감사하다”며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수행과 포교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2돌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공동대표 지하, 민병천)은 19일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 2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 집행위원장 범룡스님을 비롯해 우리는 선우 박광성 대표, 크리스천아카데미 강원룡 이사장,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서영훈 회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마리아 수녀, 제동초등학교 임명숙 교장 등 사부대중 1백50여명이 참석했다.



동방불교대 동문 '동방인의 밤'

동방불교대 총동창회(회장 이도성 스님)는 23일 오후 5시 타워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제2회 '동방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

대회를 통해 이도성 스님은 “부처님 말씀처럼 많이 배우기만을 원치 말고 한가지라도 실천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인국 태고종 총무원장, 박철언 자민련불자회장, 정덕중 태고종 전국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했다.

화엄학림 제5기 학인 모집 공고

실상사 화엄학림은 화엄경을 중심 경전으로 하여 강의, 연구, 토론 위주로 공부하는 중단 교육법에 의거한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신심과 원력이 충만한 스님들이 많이 입학하기를 바랍니다.

- 교수진 : 연관스님, 도법스님, 범성스님, 현웅스님
- 교과목 : 화엄현담, 화엄경(80화엄), 유식학, 화엄학개론, 화엄사상사, 일승심현문, 망진환원관, 법계관문, 화엄약책, 삼성원용관 등 ·특강: 필요할 경우 무시로 강의함
- 응시자격 : 비구로서 기본교육기관 졸업자 및 예정자(강원,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학부)이며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비구 사미
- 원서교부 및 접수 : 1999년 12월 1일 ~ 1999년 3월 5일(음력 10월 13일 ~ 1월 18일)
- 전형일시 : 1999년 3월 9일 (음력 1월 22일) 오후 1시 실상사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입학일시 : 1999년 3월 15일 (음력 1월 28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기본교육기관 졸업증서(예정)1부, 사진 5매(반명함판), 승려증 주민등록증 복사본 각 1매
- 문의전화 : 0671)634-3860, 3861 (화엄학림) 634-3031 (사무실) 634-3757 (주지실)

● 입학을 원하는 스님들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번지 지리산 실상사 (우:590-850)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연관

1999학년도 제8기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한국불교법사대학

통신출강 법사교육 신입수강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법사(法師)란

법사의 칭호는 대승경전에 의거하며 일체중생 모두가 해탈의 대자유와 구경법신을 이루기 위해 불교 3보의 이상적 가치를 생활속에 구현하려고 마하연의 정법을 섭수정법하는 대승의 보살로서 불교 종교인의 신앙요건과 법사품수 의례의 과정을 엄격히 갖춘 대승행자인 불교지도자임을 말합니다.

특전

- 각 과정 수료시 법사호봉수와 소정의 법사자격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본 법사교단에 포교원 및 사찰을 등록할 수 있음
- 법사불교신문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 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관모집안내

1.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2. 수업안내 : ① 출강수업 ② 통신수업
3.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대학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5.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대법사과정 = 2년
6. 원서교부 및 접수 : 1999년 1월 5일 ~ 2월 25일까지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교무처

\*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한국불교법사중앙학회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

1110-1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3층)

☎ (02) 720-1836 · 737-5305

733-1959 · Fax : (02) 737-5305